

[펌] 우크라 승리론의 환상과 외교

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

<우크라 승리론의 환상과 외교>

미 MIT대학 명망있는 안보전문가 베리 포슨교수가, 그것도 저 <포린어페어>지에 우크라 승리론의 환상을 질타하는 글을 실었다. 미국내 강고한 외교안보 이스테블리쉬먼트Establishment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꽤 주목할 만 하다.

내용인 즉 간단하다. 우크라 승리가설은 1. 서방원조를 통한 전장에서의 군사적 승리 2. 대러 경제제재를 통한 러 국내에서의 레짐 체인지.

먼저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우크라가 방어자의 잇점을 활용 러군의 소모(병력, 보급 등)를 유도 러군을 굴복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크라의 진지전은 러군의 압도적 화력지원을 받은 기동전앞에 오히려 속수무책이다. 우크군의 전술 역시 러군을 당하지 못한다. 이는 독일 국방군의 벌지전투를 연상케 한다.

경제전을 통한 압박 와해도 푸틴의 노련한 대응과 러의 경제력에 의해 오히려 위태롭게 된 것은 서방의 지도자들이다.

요컨대 남은 것은 결국 외교를 통한 해결이다. 이 또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외교적 해결은 단지 '정치적'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일이다.

포슨의 기고와는 별도로 바로 어제쯤 푸틴이 아래 취지의 말을 했다. 우리가 협상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을 끌수록 협상 조건은 더욱 가혹해 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전쟁다운 어떤 심각한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 등.

여전히 러의 입장에서 우크라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특수군사작전SMO다. 현재 시간을 끌수록 우크라가 더 큰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앞으로 어떤 톨핑포인트를 지나면 이제 문제는 협상이 아니라 무조건항복이 된다. 어쩌면 우크라는 세계지도에서 사라질 지도 모를 위협에 직면해야 할 지도 모를 일이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80442895409/posts/pfbid033cZQT2PQBWcT55CAiBaHFsR3gio8D45YSJB8cWF7urumVNsA3HqXVGJr>

- dc official App